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된 7일 새벽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대 앞에서 응원전을 펼치던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침내 해냈다" 더반 낭보에 밤샘 환호

"10년간 갈망하고 꿈꿔 온 도민들의 꿈 이뤘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순간" 강원도 곳곳 불야성

"10년 한을 드디어 풀었다"

지난 10년간 300만 강원도민들이 갈망하고 꿈꿔 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자 강원도 전역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남아공 더반 현지에서 날아든 유치 성공 낭보에 6일 밤부터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 강원도청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강릉시청 앞, 정선 조양강변 둔치 등은 순식간에 환희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개최지 발표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 모여 대형 모니터를 지켜보던 2000여 평창 주민들은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평창'이라고 발표하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두 번의 실패로 인한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으려는 듯이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일제히 일어나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어 주민들은 옆사람과 얼싸안거나 연신 박수를 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등 유치 성공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춘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민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시민들과 환호의 순간을 함께 한 박찬우(33)씨는 "모두가 염원한 승리를 시민들과 함께 나눠 더욱 기쁘고 즐겁다"고 했다.

평창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박혜연(35)씨도 "강원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강원도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춘천을 찾은 윤성호(27·서울시)씨는 "평창 유치를 확신하고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환호의 순간을 맛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아침부터 서둘러 춘천을 찾았다"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또 강릉시청 앞과 정선군 조양강변 둔치 등에서 2018 평창 개최를 확인한 주민들은 환호와 함께 각 시군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을 보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하지만 IOC 총회에 앞서 2~3시간 전부터 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각 시·군이 마련한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평창이 유리하다는 전망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졸여야했다. 두 번의 실패를 통해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유치의 기쁨 속에서도 7년 뒤 다가올 대회를 벌써 걱정하며 앞으로 준비할게 많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회사원 조정구(38)씨는 "강원도민들이 큰 대회를 준비할 만한 질서의식과 매너로 무장해 '다시 찾고 싶은 평창과 강릉, 강원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부도 부족한 강원도 SOC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밤 늦은 시각에 이뤄졌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환호가 이어졌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평창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3차례 도전 끝에 유치 성공 대단합니다" 등 평창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앞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조언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강원일보 신형철·허남윤 기자
chiwoo1000@kwnews.co.kr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개최연도	개최국, 도시
1회	1924	프랑스 샤모니
2회	1928	스위스 생모리츠
3회	1932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4회	1936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5회	1948	스위스 생모리츠
6회	1952	노르웨이 오슬로
7회	1956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8회	1960	미국 스쿼밸리
9회	1964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10회	1968	프랑스 그르노블
11회	1972	일본 삿포르
12회	1976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13회	1980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14회	1984	구(舊) 유고 사라예보
15회	1988	캐나다 캘거리
16회	1992	프랑스 알베르빌
17회	1994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8회	1998	일본 나가노
19회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0회	2006	이탈리아 토리노
21회	2010	캐나다 밴쿠버
22회	2014	러시아 소치
23회	2018	한국 평창

연합뉴스

U대회 신축경기장 대학내 건립 추진

광주시, 17개 대학에 29일까지 유치신청 공문
姜시장 "동구·남구·광산 3개구 가능성 높아"

광주시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양궁장 등을 대학 및 그 인근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장 부지부담은 물론 향후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불거진 수영장 입지 논란 속에 입지 선정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광주시와 대학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광주지역 17개 대학에 오는 29일까지 광주U대회 경기장 유치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 측이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5만5000㎡, 수영장 5만㎡, 양궁장(추후 광주 FC 전용구장) 3만6000㎡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회 이후 시민 및 학생 등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즉 경기장 부지는 대학이 제공하고, 공사비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U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은 대학이 맡는 방식이다.

광주시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애초 수완지구 내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영장 부지 매입비가 230억원 이상으로 경기장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데다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의 연간 운영적자가 각각 2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강 시장도 최근 "광주U대회의 수영장과 관련 논란이 있으나 부지 매입비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인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야한다"며 "특히 광주U대회가 대학생 축제인 만큼 대학 내 또는 대학과 인접한 지역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시장은 "서구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있고 북구에는 야구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상 자치구는 동구, 남구, 광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 대학은 경기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일부 시설의 대학 내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J프로젝트 1조3천억 투입 국제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 지구에 수소에너지 관련 중국 국영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6일 전남도청에서 중국 '핵공업 23건설 유한공사'와 '중경 경서패남성투기계설비 진출구 유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국 기업은 J프로젝트 부지에 조성되는 국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66만㎡)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해 R&D 단지와 수소에너지 관련 핵심부품·설비 생산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 클러스터에는 수소생산, 연료전지, 철강, 자동차, IT 분야에 걸쳐 한·중 기술 합작기업 20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측이 자금 조달과 국내 법인 설립, 기업 유치, 건축물 책임 준공을 맡고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토지 분양,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대지 면적 16만9364㎡에 사업비 약 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중국측은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자국의 에너지원을 원자력 중심에서 수소 및 연료전지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 림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토론회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

광주일보는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국거버넌스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적인 의회상 구현 및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 회 : 김한배 한국거버넌스학회장(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 제 : 오재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 론 : 이춘문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정관 전남대학교 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문금주 광주광역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일 시 : 7월 8일(금) 오후 3시~5시
■장 소 : 광주시의회 대회의실(4층)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주 관 :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참여자치21

光州日報社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항암. 항당뇨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츄럴 F&D
www.fnd.or.kr
고객센타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혁명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분이면 읽습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용이 아니므로 기본 장 몇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처럼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회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字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역사로 삼황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준말)와 옛날 읽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증정)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지름길이 됩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 10일(주일)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7월 7일, 21일 (목요일) 오전10시 (준비관계로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시는길 : 광주 수완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파리바게트 뒤편 에덴의교회 ☎연락처 : 010-3911-3907 062 433 3907
강 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연수원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자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가죽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합본 40,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장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

정부공사 조기발주, 자재확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원 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A급 : 재당 5,500원 ② B급 : 재당 5,000원
③ C급 : 재당 3,000원 이상
■견치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공사용(30×30×35) : 900원 ② 묘축용(25×25×30) : 900원
※비수요기로 가격 100원 인하
■전석/사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① A급 : 25톤 차량 190,000원 ② B급 : 25톤 차량 170,000원
■판 재
① 반재공급(반재대량확보) ② 완재공급
■골재 전품목 공급
※전 품목 현장 상차도 기준
문의전화 : 010-9199-7000
010-7171-5382
WWW.MODONG.CO.KR
(채석장자재) 모동기업사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944-5382 / FAX : 055)944-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판재공장) 모동석재(주)
주소 : (670-852)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105-15
전화 : 055)943-8946 / FAX : 055)943-8947
H·P : 010-3550-6678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1544-5248 | 담당 010-7112-3135